

發刊辭

이번 『冠嶽語文研究』第21輯은 耕庵 金完鎭 선생님의 停年을 기리는 紀念號로 편집하였습니다. 저희 國語國文學科에서는 停年退任教授를 기리는 紀念號를 당해 연도의 『冠嶽語文研究』로 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耕庵선생님께서 이미 停年退任을 하셨고, 또 9월 4일에는 “鄉札·鄉歌·鄉讀 그리고 韻律論”이란 제목으로 告別講演도 하셨으며, 弟子·後學들이 마련한 紀念論叢인 『문학과 언어의 만남』도 지난 10월 18일에 받으신 바 있는데, 학과의 사정상 이제가 이 紀念號를 발간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耕庵선생님께서 서기 1931년 8월 26일 忠淸南道 洪城郡 洪北面 內德里 (漁耕洞) 545番地에서 태어나시어 ‘耕’字처럼 우물가에 나무가 있던 고향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중학 4학년 때에 서울의 中央中學校로 옮기시어 당시에 周時經 선생의 아드님인 周玉山선생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고 宿命처럼 오래 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國語研究의 길을 걷기 위해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 6·25가 터졌던 1950년에 입학하시었습니다. 이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어 석사논문을 내셨던 1951년 한 해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시는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해에는 8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외에 10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내놓으시어 後學의 디딤돌을 마련하여 주셨고 주력해 오신 音韻論 연구 외에 形態·統辭論, 語彙論, 文字論, 國語學史 등 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를 해 오셨으며 鄉歌·麗謠 등 문학작품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鄉歌解讀法研究』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내놓으시어 日本人學者 小倉進平의 업적을 극복하시고 가람·白影 선생님의 연구에 線을 잇게 해 주셨습니다.

1971년 선생님께서 本科 教授로 부임하시어 온갖 정열을 쏟으시면서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선생님의 짜임새 있는 강의를 받아 적으면 그것이 그대로 한편의 논문이 된다고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엄격하시어 감히 가까이

모시기조차 어렵다고들 하면서도 자상하심과 정겨우심에 말없이 선생님을 따른다고들도 하였습니다. 律格을 갖춘 서정시처럼 말씀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弟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학문의 세계에는 선배와 후배만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다른 개인에 묶는 사고에는 의식적으로 반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回甲때에 말씀하신 기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一石과 心岳 두 분 선생님께서 他界하시어 저희들을 둘러쳐 주셨던 城壁은 무너졌습니다. 白影, 白史, 一茅, 城山 선생님들의 담장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國語學의 대들보로 계셨던 李基文 선생님께서도 지난 2월에 停年을 하셨고 함께 후학을 이끌어 주시다가 8월에 선생님마저 停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耕庵 선생님은 저희 後學들에게 우물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큰 보리수와 같은 분입니다. “城門 앞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꿈을 보았네. 가지에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뭇잎 …” 하고서 번역가사를 읊어 봅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어 계속 國語國文學科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고 동문·제자들이 안식을 위해 찾을 수 있는 보리수로 늘 곁에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열을 바치고 계신 高麗歌謠研究를 마무리지으시어 또하나의 紀念碑를 세워 주시기를 빕니다.

耕庵 선생님! 本科에서 마련한 이 변변치 못한 紀念號를 받아 주십시오.

1996년 12월 20일
冠嶽에서 國語國文學科長
李秉根 삼가 올립니다.